9강 불명불암(不明不暗)을 산다는 것

(1교시)

■ 루쉰 작품의 자전적 요소

※ 학습목표
루쉰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을 이해한다.

▲ 자전적 요소
노신의 소설, 특히 지식인이 등장하는 소설은 루쉰의 자전적 요소가 강하다. 작가 자신의 경험을 재현하는 인물(그것은 주인공일 때도 있고, 관찰하는 지식인일 때도 있다)과 그것을 텍스트 바깥에서 기술하는 인물로 대체로 분열되어 있다. 이러한 글쓰기 방식을 통해 루쉰은 자신의 행위를 객관화하고, 반성적으로 의미화한다. '쓰는' 루쉰과 '쓰여진' 루쉰이라는 이분법은 그러나 온전히 분리 가능한 영역이 아니라 경계가 모호한 것이다. 이것은 글쓰기에서 보여 지는 태도이기도 하고 루쉰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태도이기도 하다. 루쉰이 **희망과 절망과 허망함의 삼각관계 속에서 하나의 규정을 보여준 것이 아닌 것처럼** 무엇인가 하나를 정확하게 꼭 집어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루쉰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혹은 자기 안에 들어 있는 다른 속성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동시에 그것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복잡한 내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루쉰인 것이다.

▲ 그림자의 고백

사람이 잠에 빠져 때조차 분간 못할 때, 그림자가 작별하러 와서 하는 말이-
천국에 내가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곳엔 가기 싫다. 내가 싫어하는 것이 지옥에 있다면 그곳으로도 가기 싫다. 내가 싫어하는 것이 그대들 미래의 황금세계에 있다면, 그곳으로도 역시 가기 싫다.
헌데 그대야말로 내가 싫어하는 것이다.
벗이여, 나는 그대를 따라가기 싫다. 멈추는 것이
나는 싫다.
아아, 아아, 나는 싫다. 無에서 서성이는 것이 낫다.

나는 여느 그림자일 뿐이다. 그대와 헤어져 암흑에 잠기리라. 암흑이 나를 삼쿄 버릴지도 모르고, 광명이 나를 지워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는 明暗의 경계를 서성이는 것이 싫다. 암흑에 잠기는 편이 낫다.

그러나 결국은 명암의 경계를 서성이게 되리라. 황혼인지 여명인지도 모르는 채.……
그대는 아직도 선물을 달라고 조르는가. 그대에게 줄 무엇이 나에게 있단 말인가.
굳이 있다면 역시 암흑과 공허뿐이다. 단지 바라건대 암흑이 행여 그대의 白日로 하여 지워지기를.
단지 바라건대, 공허가 결코 그대 마음을 채우는 일이 없기를.(『그림자의 고백』 중)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육체가 있고 빛이 비치는 한 그림자는 있다. 그림자가 없으려면, 빛이 없거나 육체가 없어야 한다. 그림자는 육체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루쉰의 그림자는 빛도, 육체도 거절한다. '싫어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육체와 결별하고 암흑에 잠긴다는 것은 그림자의 죽음이다. 죽음과 맞바꾸고 싶을 만큼 혹은 '無에서 서성이는 것'이 나을 만큼 '싫어하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세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바로 그림자의 육체 바로 그 자신이기도 하다. 루쉰의 그림자는 '암흑과 공허' 혹은 '무'로 가득 채워진 자신의 육체를 견디기 힘들다. 그림자는 나이기도 하고, 내가 아니기도 하다.

▲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

노인: 손님 이리 앉아요. 실례지만 성함은?
행인: 성함이요? -모릅니다. 저는 철든 이후로 혼자뿐이어서, 제 이름이 무언지 모릅니다. 길을 걷노라면, 사람들이 가지가지 이름으로 불렀지만, 너무도 여러 가지여서 저 자신도 기억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같은 이름은 두 번 다시 듣지를 못했으니까요.
노인: 허, 그렇다면 어디서 오시는 길이오?
행인: (잠시 주저한 끝에) 모릅니다. 저는 철든 이후로 줄곧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걸어서 아무 곳이나. 앞쪽의 어느 곳이든 갑니다. 거는 많은 길을 걸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곳에 왔다는 것밖에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또 저쪽으로 향해 갑니다. (『행인』 중에서)

정해진 이름도, 정해진 목적지도 갖고 있지 않은 행인은, 매번 새로운 길을 가며 그 때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그에게는 무수한 길, 무수한 이름이 있고, 그 때마다 그는 매번 다른 존재가 된다. '정해진 무엇'이 없다는 것, 그것은 고통스럽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9강 불명불암(不明不暗)을 산다는 것

(2교시)

■ 지식인으로서 루쉰의 길

※ 학습목표
루쉰이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진보하는 지 알아본다.

▲ 루쉰의 '운동'과 '진보'
루쉰이 말하는 운동은 진보와 맞닿아 있다. 그런데 루쉰의 경우 진보와 쇠퇴의 경우를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서양식의 세계관이 적용되지 않는다. 진보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 즉 운동하는 것인데 그 운동의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방향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루쉰에게는 죽음도 삶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 루쉰의 '길'
루쉰이 '쉬광핑'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갈림길을 만나면 다른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지 않을 것이며, 만약 호랑이를 만난다면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 호랑이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막다른 길에 다다른다면 갈림길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헤쳐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루쉰은 『고향』에서도 세상에는 길이 없을 수 없으며, 따라서 막다른 길이라는 것도 없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길은 사람들이 밟아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루쉰에게 이것과 저것의 경계나 담은 있을 수 없다. 루쉰은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 루쉰이 바라보는 지식인의 문제
애초에 지식인이란, 비겁한 자들이다. 그들이 바라보는 삶은 언제나 지나치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생활의 문제와 대면했을 때, 혹은 자신들이 꿈꾸던 것이 좌절되었을 때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른다. 하지만 루쉰의 지식인들은 그 좌절을 견디는 방식이 조금은 유별나다. 리엔수는 변절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철저히 조롱하며 암흑 속으로 잠겨들었고, 『술집에서』의 지식인들은 스스로에 대한 혐오를 자각하고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견딘다. 『아침 꽃을 저녁에 줍다』의 '범애농'은 루쉰과 교류했던 실존인물인데 죽기 전 루쉰이 자신을 불러주기를 계속 기다렸다고 한다. 범애농과 같은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 소설 속에서 루쉰의 자전과 만나면서 독특한 지식인들의 모습을 만들어내는데, 『고독한 사람』의 리엔수가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